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16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3. 3. 16.(목) 08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 한덕원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 문해진 (042-481-3573)

특허청,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
-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'지식재산 혼합(IP-MIX)' 전략 상담 신규 추진 -
- 기업의 관리역량에 따른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 상담 강화 -
- 기술경찰·변호사 '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' 신설 운영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*되면서 첨단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·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·기술보호 상담(컨설팅)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*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(22 국정원)로 추산되고,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,827억원(22 중기부) 규모로 조사됨

①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·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'지식재산 혼합(IP-MIX) 전략 상담(컨설팅)'을 신규 추진한다.

○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,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
[참고] ㄱ사는 의료기기 개발·제조업체로, 관련 기술데이터 및 구동 소프트웨어 자료 등을 빼돌린 임직원을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였으나, ㄱ사가 해당 의료기기의 기술내용을 특허출원하여 공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유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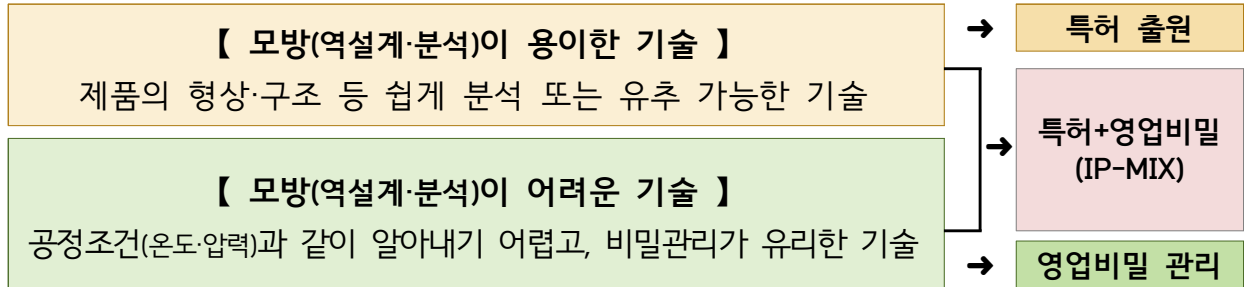
○ 기업 등은 지식재산 혼합(IP-MIX) 전략 상담(컨설팅)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.

- ②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**영업비밀 보호 상담(컨설팅)**을 기초 → 심화 2단계에서 기초 → 심화 → 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.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**영업비밀보호센터**는 ①**영업비밀 기초상담(컨설팅)**을 통해 신청기관의 **영업비밀 관리현황**을 진단한 후 **관리방안**을 제공(1일)하고,
 - ②**영업비밀 심화상담(컨설팅)**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하여 **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**을 지원(3~5일)하고 있다.
 - 이번에 신설한 ③**영업비밀 후속상담(컨설팅)**은 영업비밀 심화상담(컨설팅)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**영업비밀 관리현황**을 점검받고 **보완**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.
- ③ 기술유출·침해 피해가 발생한 **중소기업과 대학·공공연의 피해구제**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**법률자문도 강화**한다.
-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,
 -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구제, 기술유출·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‘**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**’을 새롭게 실시한다.
-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, 우리기업이 **영업비밀·기술보호 상담(컨설팅)**을 통해 **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**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지식재산 혼합(IP-MIX) 전략 상담(컨설팅)은 3월 16일(목)부터 30일(목)까지, 영업비밀 심화상담(컨설팅)은 3월 16일(목)부터 24일(금)까지 **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(www.tradesecret.or.kr)**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-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해 기업, 대학·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에 방문하여 IP-MIX 전략* 컨설팅을 85개사에 신규 지원

* 보유기술을 특허·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다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

< IP-MIX 전략 예시 >



-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을 기초컨설팅 → 심화컨설팅 → 후속컨설팅 등 3단계로 체계화

<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단계별 지원 체계 >

구분	세부내용
① 기초컨설팅 (계속)	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기관 내에 실현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 제시(신청기관 1일 방문)
② 심화컨설팅 (계속)	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하고, 인적·물적·제도적 부문별 관리방안 설정 및 이행 지원(신청기관 3~5일 방문)
③ 후속컨설팅 (신규)	지속적인 영업비밀 관리방안 이행 및 보완을 위해 신청기관의 심화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와 연계하여 사후 지원

-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 유출,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초동대응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공동 방문상담* 제공

* (기술경찰) 신고·수사절차 안내 / (영업비밀보호센터) 법률상담·지원사업 안내